

기자간담회 모두발언(2025.11.27.)

□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현재의 2.5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먼저 국내외 경제 여건을 설명드린 후 기준금리 결정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대외여건을 살펴보면, 세계경제는 미국 관세정책의 영향으로 성장세가 둔화되겠지만 미·중 무역갈등 완화, 주요국의 확장적 재정정책 등으로 둔화 속도는 완만할 전망입니다. 미국은 고용 둔화에도 불구하고 AI 투자, 감세 정책 등으로 내년 성장률이 2% 내외로 예상됩니다. 유로지역은 금융여건 완화, 재정 확대 등으로 완만한 개선 흐름을 이어가겠으며, 중국은 수출 둔화로 성장세가 약화되겠으나 경기 부양책이 이를 일부 완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주요국 인플레이션의 경우 미국에서는 관세의 영향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당분간 3% 내외에서 등락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유로지역은 낮은 수요압력 등으로 2%를 하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 연준의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변화, 주요국 재정상황 등에 영향받아 장기 국채금리와 미 달러화 지수가 상승하였다가 일부 되돌려졌습니다. 주가는 기업실적 호조, 미·중 무역갈등 완화 등으로 상승세를 지속하다가 AI 부문에 대한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 다음으로 대내 여건을 살펴보면, 국내경제는 개선세를 이어갔습니다. 내수는 건설투자 부진이 이어졌지만 민간소비가 경제심리 개선과 정부의 내수활성화 정책으로 회복세를 지속하였으며, 수출은 관세부과에 따른 대미 수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를 중심으로 예상보다 양호한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국내 물가는 여행 관련 서비스 및 농축수산물 가격 상승, 환율 상승에 따른 석유류가격 오름세 확대 등으로 10월 중 소비자물가와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2.4%와 2.2%로 높아졌고 단기 기대인플레이션율은 11월 중 2.6%로 전월과 같은 수준을 유지하였습니다.

- 국내 금융·외환시장에서는 주요 가격변수의 변동성이 확대되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거주자의 해외투자 확대 및 외국인 주식순매도 등의 영향으로 1,400원대 중후반으로 높아졌고, 국고채금리는 경기개선 전망, 금융안정 경계감에 따른 국내 통화정책에 대한 기대변화 등으로 상승하였습니다. 주가는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AI 부문에 대한 고평가 우려 등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주택시장 및 가계부채 상황을 보면 금융권 가계대출은 주택관련대출의 둔화세가 이어졌으나 기타대출이 주식투자 관련 자금 수요 등으로 늘어나면서 증가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은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이후 규제지역을 중심으로 거래량이 감소하였으나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이고 추가 상승 기대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 아울러 지난 8월 경제전망 이후의 대내외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앞으로의 성장과 물가 흐름을 다시 점검해 보았습니다.

먼저, 금년과 내년 성장률은 각각 1.0%와 1.8%로 지난 8월 전망치 0.9%와 1.6%를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성장률을 상향조정한 이유를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글로벌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당초 예상을 상회할 것으로 보았습니다. 소비 측면에서도 확장적 재정정책과 경제심리 개선의 영향이 커지면서 회복세가 좀 더 빨라질 것으로 예상하였습니다. 반면 건설투자는 부진이 점차 완화되겠지만 그 속도는 예상보다 더딜 것으로 전망하였습니다. 이러한 성장경로에는 글로벌 통상환경, 반도체 경기, 내수 회복 속도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금년과 내년 모두 2.1%로 지난 8월 전망치인 2.0%와 1.9%보다 높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년의 경우 환율 상승, 기상여건 악화 등이 상향조정 요인으로 작용하였고 내년은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이 물가 상승 압력을 예상보다 높일 것으로 보았습니다. 근원물가 상승률은 금년은 1.9%로 지난 전망에

부합하겠으나, 내년은 지난 전망치 1.9%를 상회하는 2.0%로 예상됩니다. 향후 물가경로는 환율 및 국제유가 움직임, 경기 개선세의 영향 등과 관련한 불확실성이 큰 상황입니다.

□ 마지막으로 이 같은 대내외 정책 여건을 고려한 기준금리 결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에서는 물가상승률이 다소 높아진 가운데 성장은 전망의 불확실성이 여전하지만 소비와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를 이어가고 있고 금융안정 측면의 리스크도 지속되고 있는 만큼 현재의 기준금리 수준을 유지하면서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결정에 대해 신성환 위원은 기준금리를 2.25%로 인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 기준금리 결정 배경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우선 지난 10월 통방 이후 한 달여밖에 지나지 않았지만 그간 경제 여건에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먼저 긍정적인 측면을 보면, 한·미 무역협상이 타결되고 미·중 무역갈등이 완화되었으며 반도체 부문을 중심으로 수출과 설비투자 증가세가 예상을 상회하였습니다. 반면,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고 부동산 가격의 높은 상승세가 지속된 점은 부정적 측면이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성장은 내수 및 수출을 중심으로 개선세가 이어지면서 내년에는 잠재수준의 성장세에 가까워질 것으로 전망되었습니다. 다만 최근의 성장흐름을 보면 반도체 등 IT 부문의 성장세는 견조한 반면 관세 영향이 큰 부문과 지방중소기업 등에서는 부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내년 성장에는 기저효과의 영향도 있는 데다 상·하방 불확실성도 여전한 만큼 여러 리스크 요인들의 전개상황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물가상승률은 당분간 2%를 상회하는 수준에서 등락하다가 점차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높아진 환율, 내수 회복세 등이 상방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안정 측면에서는, 가계부채와 외환시장 상황에 계속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수도권 주택시장의 높은 가격 상승 기대가 지속되는 가운데 가계부채도 10.15 대책 이전 늘어난 주택거래의 영향으로 증가규모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환율은 높은 변동성을 지속하고 있어 물가와 금융안정에 미칠 영향에 유의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고 대내외 정책 여건을 점검해 나가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앞으로의 통화정책 운용방향에 대해 말씀드리면, 성장률 전망이 상향조정되었지만 향후 경로에 상·하방 위험요인이 모두 잠재해 있는 상황이고 부동산시장의 높은 가격상승 기대, 환율 변동성 확대 등 금융안정 리스크가 여전하며 물가상승률도 다소 높아진 점을 고려할 때 당분간 기준금리를 추가 인하할 가능성과 동결을 이어갈 가능성을 모두 열어놓을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인하 여부와 시기는 앞으로 입수되는 데이터를 토대로 성장과 물가 흐름, 금융안정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두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